

중앙교섭·지부교섭·지회교섭 승리 정리해고 분쇄·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‘파업’ 결정

지난주 6월27일(토) 노동자-서민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(중앙집행위원회)는 중앙교섭·지부교섭·지회교섭 승리와 정리해고 분쇄·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을 전격 결정했다. 이는 이명박 정권 하의 엄호아래 사용자들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, 자본중심의 구조조정 위협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분노의 결의였다. 특히 쌍용차지부에 가하고 있는 몸서리치는 정부와 사측의 협공을 분쇄하고,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 하여금 노정교섭에 나서도록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정이었다.

그동안 노조는 지난 19일~20일 ‘전 조합원 상경투쟁’ 등을 통해 금속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, 반노동·반민중 MB정부에 맞설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왔었다.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노조차원의 파업지침 1호를 내리게 되었다. 노조 파업지침 1호의 주 내용은 6월29일(월)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, 평택 집결투쟁을 전개한다는 것과 7월1일(수) 모두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.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각 종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의 힘을 통해 정면승부로서 ‘임단투 승리·정리해고 분쇄·쌍용차투쟁 승리’를 쟁취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.

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다소간 지부·지회의 어려움은 존재하겠지만 올هن여느 때와 달리 한 사업장의 힘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.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조차원의 투쟁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여차하면 금속노동자 전체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. 노조는 쌍용차투쟁의 결합이 금속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, 전국의 지부장들이 모여 노조 차원의 ‘파업’을 결정했다. 이제 금속노동자의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 최대한 노력해야한다.

자! 지금부터 전면적인 투쟁이다.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투쟁의 힘을 한꺼번에 분출시킬 수 있도록 ‘6월29일 4시간 파업’과 ‘7월1일 전면 파업’을 위해 최대한 준비 노력하자. 동지가 바로 금속노조의 힘이다.

● 6월 29일 4시간 파업
● 7월 1일 전면 파업

